

## 한 해를 보내며



신사년 한 해도 저물고 임오년을 맞이한다.

세계적인 불황 속에 미국의 테러 사건으로 세계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끼었던 한 해였다. 차세대 산업이라 각광 받던 IT 산업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방과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 국내 정보통신의 첨단 기술들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도 갖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산업 육성책을 꾸준히 이끌어 가고 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더불어 내년도에 시행할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선정지원사업계획'을 세우는 등 산업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내년에는 선도기반기술에 대한 지원은 물론 점점 전문화 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IT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도 올 한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7월 1일자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넓은 민·관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지난 3월 「2001년도 3개 부처 정보화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3개 부처 관계자들과 업계, 학계, 언론계 사람들이 모여 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고, 「리눅스 활성화 세미나/대 토론회」 역시 발 빠른 대응책으로 업계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2001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EXPO COMM KOREA 2001)」를 개최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동 기간동안 아시아 지역의 통신산업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자리인 「제7차 ATIE(Asia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Exchange)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IT포럼」을 열어 산업에 관한 정보 교환의 자리도 마련하였다. 또한 ASEAN+3 회의 개최를 통한 「제1차 ASEAN+3 정보통신 민간협의회 발족을 위한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ASEAN+3 시대를 열었다.

새 천년 정보통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멀티미디어 기술대상」도 역시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관계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IT Biz

New Trend & Forecast 특별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 IR」도 개최하였다.

음성을 이용한 정보처리 산업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2월에 창립된 음성정보처리산업 협의회는 음성 정보처리에 대한 업계의 정보 요구를 만족해 주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위원회」는 공동 DB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시스템 보안 관련 정부,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시행은 물론 「국제 Trust Mark 워크샵」을 개최, 국제 협의회 구성에 공감을 얻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과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터넷 정보가전 분야에서도 「인터넷정보가전 개발 워크샵 & 전시회」를 개최하여 국내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와 실연의 장을 마련하는 등 날로 확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업계에 전달하여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정부와 업계의 상호간 대화의 장으로서의 「정보통신포럼」은 업계의 의견이 정부 정책 수립에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제9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올 한해 정보통신산업 결산과 내년도 산업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 업계 관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매년 개최되는 이 행사는 올해에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내외 정보통신 산업 현황을 비롯하여 남북 경제협력에서의 역할 등 한해 동안의 국내 정보통신산업 주요 현황과 성장 규모 등을 살펴보고 내년도 시장전망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리눅스 마스터」과정을 신설해 자격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은 아마도 정보통신 분야의 어려웠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첨단기술개발과 산업의 성장·발전은 내년에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21세기 국가 경쟁력 향상과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을 주었던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내년도도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2001. 12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 장 호